

순천시, AI 기반 공동체 강화... ‘스마트 도시’ 구축

케어콜·안녕 앱 등 안부·응급 대처 ‘AI앰블런스’ 도입...이송체계 강화 AI 챗봇 ‘이루미’ 대민 행정 디지털 “시민 안전망·행정 효율 높여갈 것”

순천시가 복지, 의료,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대화형 AI인 ‘순천 케어콜’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구구에 매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있다. 해당 AI는 이전 대화를 기억해 맞춤형 대화를 이어가는 등 단순한 안부를 넘어 정서적 교류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순천살림 안녕 앱’과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감지해 응급 상황을 파악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도 운영 중이다.

현재 2800여명의 시민들이 AI 안부 살림 케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실제 지난해 8월에는 왕조1동에 거주하는 윤모씨가 ‘순천 케어콜’에 응답하지 않음에 따라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방문, 기력을 잃고 누워있는 윤모 씨를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한 바 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AI앰블런스’ 시스템을 도입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병원을 연결하고 최단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환자의 생존

율을 높이기 위한 이송·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AI앰블런스를 활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치로도 가능하다.

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새롭게 지정된 순천중앙병원 등으로 AI앰블런스 시범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톨릭병원 주도로 다양한 응급 사례를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응급의료기관과 소방서간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대민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시 누리집에는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챗봇 ‘이루미’를 운영 중이며, 외국어 실시간 번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네이버 공공정보특화검색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이 ‘순천’을 검색하면 AI가 관광명소, 지정 소식 등 유용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행정업무 중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대표브랜드 MICE 1위 지난해 MICE행사 1262건 유치

여수시는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마이스 산업도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여수시는 고양시와 수원시·경주시·포항시·춘천시를 제치고 ‘마이스 산업도시’ 분야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유·무형 제품 또는 기업·단체 브랜드에 대한 최초 상기도, 인지도, 마케팅활동, 브랜드 선호도 등을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와 내부 인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MICE행사를 1262건 유치하고 1470억원가량의 파급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올해 문화부 MICE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인 ‘예비 국제회의지구’에 선정되는 성과도 이뤘다.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과 사업추진으로 현재까지 총 4개국(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21곳의 여행업체들과 MICE공동 마케팅 및 여수 유치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MICE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여수가 대한민국 최고 MICE도시로서의 인지도와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MICE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지 기자

광양시, 불용 농업기계 현장 경매 30일 농업기계임대사업장서

광양시는 오는 30일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불용 농업기계를 현장 경매 매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재 보유 중인 임대 농업기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노후된 기종을 자체 수리해 관내 농업인에게 입찰 매각할 예정이다.

입찰공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입찰 매각 기종은 잔가지 파쇄기(4대), 다목적운반차(2대), 승용관리기 및 로터베이터(5대) 등 총 9종, 25대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양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이다. 대리 입찰은 불가하고 입찰 가능 대수는 1인 1대로 제한된다. 오는 30일에 1회차 매각을 진행하며, 유찰된 기종은 5월21일에 2회차 경매를 진행한다. 관련해 궁금한 점은 광양시 기술보급과(061-797-355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은 지난해에도 승용관리기, 보행관리기 등 3종 11대를 관내 농업인에게 입찰 매각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개최 내달 2~4일, 안양면 수문항서

제22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가 오는 5월2일부터 5일까지 장흥군 안양면 수문항에서 개최된다.

21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로 22회를 맞는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는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에서 자란 장흥 키조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축제장에서는 지리적표시 수산물 제8호로 지정된 키조개를 활용한 장흥삼합, 키조개 구이, 탕수육, 죽 등 다양한 키조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키조개 까기·썰기, 어린이 문화체험 등 체험행사와 키조개축제 군민가요제도 함께 진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키조개 축제에 오셔서 키조개 요리도 맛보고 다양한 체험도 즐기면서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예술정원’ 프로그램 진행 고흥군문화도시센터

고흥군문화도시센터는 4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고흥예술정원 프로그램을 오는 30일 오후 8시 고흥 꿈꾸는예술터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고흥예술정원’은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예술정원’을 주제로 무용가 오윤겸, 성장용, 최수진이 함께한다.

프로그램은 △몸 전체를 감각하는 위밍업 △손 조명을 통해 즉흥 움직임 만들기 △서로의 움직임 활동 공유하기 등 신체를 활용한 움직임 활동이 마련됐다.

참여자 수는 이날부터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은 고흥군문화도시센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정보 무늬(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다양한 예술 체험으로 4월을 마무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고흥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 고흥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전남문화재단, 고흥군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한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촉진을 위해 11월까지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군민들이 목공예 교육을 받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목공예기능인 양성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고흥군은 국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목공예에 대한 전문지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목공예기능인 양성 프로그램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6일부터 포두면 옥강리에 위치한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진행되며, 평일반(매주 화·목요일), 주말반(매주 토요일)으로 나뉘 총 2개 강

좌가 각 10주(40시간) 동안 운영된다.

교육은 목공예 장비 사용법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소품 제작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선발 인원은 강좌별 8명이며, 고흥군 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날부터 22일까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해

순천경찰-순천농협, ‘피싱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

“시민 경각심 제고”

순천경찰서는 21일 순천시 조례사거리에서 순천농협과 합동으로 피싱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관 및 농협직원 70여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주요 범죄유형과 피해 예방 요령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범죄 유형인 검찰·경찰 사칭 형사 사건 연루 협박형, 금융기관 사칭 대출빙자형 등을 비롯해 메신저 피싱 등을 소개하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금융 정보 요구 시 즉시 통화 중단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순천경찰서와 순천농협이 21일 순천시 조례사거리에서 피싱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순천경찰 제공

등의 구체적인 대처방안도 안내했다.

순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 농협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 자산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